

(2) 전라도지역의 천주교 전래

① 1791년 유향검의 영세

유향검은 전주 초남 출신으로 이승훈, 권일신에 이어 아우구스티노라는 세례명으로 영세를 받고 전라도지역 선교활동에 나섰다. 전라도지역 출신으로는 최초의 천주교 영세자였다.

② 1791년 윤지충의 순교

전라도 진산 사람인 윤지충은 유향검에 이어 두번째의 전라도 출신 천주교 영세자였다. 윤지충은 권상연과 함께 조상의 신위를 없애고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 하여 국법으로 참형당했다.

③ 1795년 주문모 신부

홍산 사람인 이존창은 주문모 신부를 숨기기 위해 집을 고산으로 옮기면서 선교활동을 폈다. 전라도지역의 천주교 전교는 유향검과 윤지충 그리고 주문모 신부의 노력으로 기틀을 다져가게 되었다.

④ 1801년 유향검의 순교

신유박해로 유향검 일가족이 체포되고 전주·금산·고산·영광·무장·김제 등에서 200여명의 신자가 잡혀서 고문을 당했다. 이 신유박해로 수많은 전라도 신자가 처형되었고, 이때에 배교한 자들은 귀양을 보내고 또는 석방했다. 끝내 지조를 지켰던 유향검과 유관검은 옥시형을 받아 순교하고 윤지현·김유산·이우집 그리고 영광의 최여검 등이 참수되었다. 이들의 순교와 함께 전남과 전북의 경계를 이루는 노령산맥의 방장산 일대에는 교우촌이 형성되었다. 특히 방장산 줄기를 따라 장성의 숙호치와 갈라지고 북이면의 여러 마을과 산길로 연결되는 무장 일대에는 천주교가 급속히 전파되어 입교자의 수가 늘어났다.

⑤ 1827년 정해교난과 곡성

신유박해 이후 전라도 곡성 덕실마을의 옹기점에서 작은 사건이 발생하여 그것이 교난으로 확대되었다. 처음에는 곡성지역에만 그쳤던 천주교 탄압이 신자들의 피신을 계기로 순창·용암·임실·장성·전주 등의 전라도 전역으로 강화되어 전라도 관청의 모든 옥이 초만원을 이루게 되었다. 당시의 박해는 몹시 혹독했으며 전주에서만 체포된 교우도 240명이 넘었다.

⑥ 1839년 기해교난과 광주

천주교를 사학(邪學)으로 박해가 계속되던 중에, 임인년 전국의 죄수들과 함께 팔도에 귀양가 있는 천주교 신자들에게 국령에 복종한다는 조건으로 석방해준다는 특사령이 내렸다. 이때 광주 목사는 죄수가 된 많은 교우들을 설득시키려 노력했다. 그러나 홍재영 등 많은 교우들이 그 가족과 함께 혹형을 받으면서도 굴하지 않고 비참한 희생을 당했다. 이로 하여금 고산·금산·용담·광주 등의 지역에 혹독한 박해가 강화되었다.

⑦ 1872년 나주 무학당사건

천주교에 대해 심해지는 박해를 피하기 위하여 많은 교우들이 나주 금성산에서 교우촌을 형

성하고 옹기를 굽고 화전을 일궈 신앙생활을 계속했다. 이때에 교우 유치성·강성운·유자직 등은 신앙을 증거하다가 나주 무학당에서 순교한 사건이 발생했다.

⑧ 1891년 장성 안흥서사건

파리 외방선교회 출신 보두네 신부와 베르모렐 신부 두 사제가 전라도지역의 선교를 담당하고 있었다. 베르모렐 신부가 장성군 서이면 탐정리 교우촌에서 선교활동을 하고 떠난 지 얼마 안 되어 같은 마을의 박수성이 교우 안흥서에게 외국인을 유숙시켰다고 옥설을 퍼붓고 반목이 시작되었다. 박수성 일파들은 관가와 내통하여 천주교 박해를 가함으로써 교우들의 신앙생활은 큰 고통이 되었다. 이 사실이 베르모렐 신부에게 알려지자 프랑스 공사와 조정 간에 국가적 외교문제로 비화되었다.

⑨ 1897년 목포지역에 천주교 정착

뤼텔 주교는 1896년 전라도지역 사목방문시 목포에 천주당을 짓기로 선정하였다. 목포는 제물포·원산·부산에 이어 개항지로서 선교사의 근거지를 마련하기에 조건이 좋았다. 이때 목포지역에 드에(A bert Deshayas, 조유도) 신부가 최초로 부임하여 지금의 산정동본당(本堂)을¹⁾ 마련했다. 1900년에 42명이 세례를 받았다. 목포 산정동본당은 광주교구의 모교회이다.

⑩ 1900년대 도서지역의 전교

완도와 신안 일대의 섬들은 조정의 중죄인 유배지로 이용되었으며 천주교 신자들도 박해 기간에 이곳으로 많이 유배되어 살고 있었다. 드에 신부는 이 섬들을 수시로 방문하면서 공소(公所)를²⁾ 선정하여 선교활동을 시작하였다. 압해도 등의 여러 도서지역에서 약 500명의 신자들이 영세를 받았다.

⑪ 1909년 계량본당 설립

나주군 계량면에 목포본당의 뚜르뇌 신부가 터를 잡아 전교를 시작하였다. 초대 신부로 까다르 신부가 부임하였다.

-
- 1) 자립적인 교회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단위 교회이다. 본당이라고 일컫는 교회는 주교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내에서 독립적으로 교회 살림을 운영하며 주교의 협조자로서 사제(본당 신부)가 상주하는 곳이다. 여기서 단위 교회는 교계제도상 주교의 권한에 속하는 교구 내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음을 뜻한다. 본당 신부라 함은 교구장의 관할권하에 있는 본당 내에서 사목의 의무와 권리를 교구 재치권자로부터 부여받은 사제를 말한다.
 - 2) 본당에 소속된 규모가 작은 예배장소로서 본당 신부가 기거하지 않는다. 이곳은 공소 회장이나 전교 회장이 본당 신부의 위임을 받아 평신자로서 공소예절과 기타 신심행사를 지도한다. 본당 신부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미사를 집전한다.

⑫ 1926년 박재수 신부 부임

까다르 신부에 이어 박재수 신부가 부임함으로써 계량본당은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하였으며 명칭을 '계량천주교회'에서 '나주천주교회'로 바꾸었다. 이 성당이 현재의 노안성당의 모체가 된 것이다. 여기에서 광주 북동에 부지를 매입하여 노안본당 소속 공소를 발족시킴으로써 광주지역의 복음화가 시작되었다.

⑬ 1933년 광주본당 신설

1896년 전남 도청이 나주에서 광주로 옮겨지자 광주는 도청소재지가 되었지만 천주교의 포교는 황무지 상태였다. 노안본당의 박재수(요한) 신부는 광주본당 설립기금을 모아서 광주읍 옥정리, 현재 광주시 북동 33번지에 약 1,000평의 부지를 마련하고 공소건물을 지었다. 1933년 5월 29일 대구교구장 다블뤼 주교는 민정호(마르꼬) 신부를 광주본당의 초대 신부로 임명하면서 광주공소가 광주본당으로 승격되어 신부가 상주하였다. 이것이 현재의 북동본당이다.